



조간 제7983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음력 10월 22일)

## 광주, '반도체 첨단패키징 허브도시'로 키운다

### 정부, 이 대통령 주재 'K-반도체 육성전략' 발표

### 광주~부산~구미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소부장기업 지원

광주가 '반도체 첨단패키징(후공정) 허브도시'로 조성된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 인프라 비수도권 확산을 위해 광주와 부산·경북 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광주~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의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육성전략을 보고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현재 대만 정부가 추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국화'를 국내에서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지원과 시설 구축 등이 집중 추진된다. 부산은 '전력반도체 생산 허브'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구미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에 R&D 및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소재·부품 시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광주는 '첨단패키징 허브'로 집중 육성한다. R&D와 기반구축(실증인프라), 인력 양성 등 전방위 지원으로 산학연 역량을 서남권에 결집을 통해 국가대표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선도기업인 엠토테크놀로지코리아가 자리하고 AI DC 구축으로 패키징 수요 형성이 기대돼 첨단패키징 기업이 집착하기에 유리한 최적지로 분석됐다.

전남 등 재생에너지로 RE100(재생에너지 100%) 대응이 용이하고, 연구소·대학 등 지식 인프라가 우수한 점도 장점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 R&D를 지원한다. 앵커 기업과 연계해 소부장 기업이 반도체 패키징 허브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예타 기획(약 5000억원 규모)을 통해 공정·규모 확대도 추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나 재생에너지 자립도

시 지정을 통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첨단 패키징 맵 건설 지원도 추진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거점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전남대–한국에너지공대(肯大)를 연계한 반도체 연합공

학연합과 산학협력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확충에도 힘을 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및 반도체 아카데미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성화대학의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국내 첫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도 추진한다. 광주 Arm 스쿨을 설립해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인프라·재정 등 우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 일시: 2025.12.10.(수) 10:00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는 호남발전특위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과제의 진행 상황과 정부 및 국회 예산 반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호남 예산 확실히 챙긴 민주당 "지역발전에 보답"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확보...지방선거 앞두고 '텃밭 민심 다지기'  
정정래 대표, 광주서 최고위원회...“내란세력 완전 척결”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광주를 찾아 역대 최대 규모의 호남 예산 성과를 홍보하고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도 재차 강조했다.

▶ 관련기사 8면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예산 쟁기기'를 통해 텃밭 민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먼저 "12·3 비상계엄은 현법

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며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바로 이곳 광주 5·18이었고, 계엄을 극복하고 이제 명 정부가 출범해 국가가 정상화된 것 또한 호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광주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없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큼데, 대한민국은 호남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는 호남인들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다시는 이 땅에 친위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선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면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독일이 나치 전범뿐 아니라

단순 보조·방임 등 행위에 대해서도 단죄

한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면에 계속

장승기·이현규 기자 sky@gwangnam.co.kr

### 2025 제14회 중소기업 경영인대상 수상자

#### 삼우산업·남우기술공사 '종합대상'

12월 23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서 시상식

광남일보·전라도인이 주최·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광주시·전남도·한국산업단지공단·광주상공회의소·광주지방조달청이 후원하는 '2025 제14회 중소기업 경영인대상' 최종 심사 결과, (주)삼우산업과 (주)남우기술공사가 종합대상으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다.

또 하노이스카(주)·한국건설안전관리원, (주)리버트리, 아라, (주)정도, 백운산업(주), (주)남부이엔씨, (주)원기람, (주)우성정공이 대상으로 선정돼 각각 광주시장, 전남도지사상,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상을 받는다.

2025 중소기업 경영인대상 시무국은 최근 광남일보 1층 MVG라운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주)삼우산업 등 18개 기업을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은 23일 오후 2시 염주체육관 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

■ 종합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주)삼우산업(대표 허승업), (주)남우기술공사(대표 김상용)

■ 대상 △광주광역시장상 하노이스카(주)(대표 흥승표), (주)한국건설안전관리원(대표 이종만), (주)리버트리(대표 조아름), 아라(대표 이성현)

△전남도지사상 (주)정도(대표 전민수), 백운산업(주)(대표 장성호), (주)남부이엔씨(대표 이석만), (주)원기람(대표 이형주)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상 (주)우성정공(대표 박웅서)

■ 최우수상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상 어나더카친(대표 김유빈), (주)한길산업(대표 송영한), (주)마루건설(대표 박상봉), (주)이지디에스산업(주)(대표 이근진), 씨에스에너지(주)(대표 김순기), (주)성동테크(대표 박정아)

△광주지방조달청장상 (주)아이아이에스티(대표 서범석)

▶ 2면에 계속

장승기·이현규 기자 sky@gwangnam.co.kr

##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모집기간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000명(선착순)

초청강사 정치, 경제, 교수, 법조, 의료, 문화예술, 저명인사 초청 특강

강의시간 매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특급호텔 석식 제공)

학사운영 1년 과정 (1학기 : 3월~6월 / 2학기 : 9월~12월)

해외연수 2026년 여름방학 중 (예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접수문의 광남일보 사업국 (T. 062-370-7090)

접수방법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종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광남일보